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최근 수정일 : 22.11.10(목)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② 07. ③ 08. ② 0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① 15. ④ 16. ⑤ 17. ④ 18. ③ 19. ③ 20. ②

1. 노자와 장자의 삶의 태도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갑은 인위적인 덕을 버리고 무위자연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 노자이고, 을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한 장자이다. ② 노자와 장자 모두 인위적인 덕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른 무위의 삶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은 유교의 입장이다.
-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교의 입장이다.
- ④ 연기(緣起)의 원리를 깨달아 못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불교의 입장이다.
- ⑤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은 유교 사상가 순자의 입장이다.

2.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앎과 실천의 공부는 서로 의존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주장한 주희, 을은 앎과 실천은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한 왕수인이다. ④ 왕수인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즉 마음이 곧 이(理)이므로 이(理)를 마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주희는 인간 본성은 선(善)하지만 기질에는 불선(不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기질을 바로 잡아 천리(天理)로서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하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주희는 지(知)와 행(行)의 선후(先後)를 논한다면 지를 우선해야 하고, 경중(輕重)을 논한다면 행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왕수인은 치지(致知)를 사물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을 주장하였다.

3. 플라톤과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세상을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구분하고 이데아계는 인간의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플라톤이며, 을은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만족이라고 주장한 스피노자이다.
⑤ 플라톤은 좋음[善]의 이데아를, 스피노자는 신을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으로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플라톤은 사물은 감각 경험으로 인식 가능하고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플라톤은 사물은 생성 소멸하고 이데아는 영원불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은 사물과 이데아는 인식 방법도 다르고 존재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주장하였다.
- ④ 스피노자는 자연은 무한한 실체이고 자연 안의 사물들은 유한한 양태라고 주장하였다.

4. 동학과 원불교 사상의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수심정기(守心正氣)의 수련법을 주장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이며, 을은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 원불교의 창시자 박종빈이다. 최제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천주(天主)를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강조하였다(ㄱ). 박종빈은 생활 속의 불교를 표방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과 일상생활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생활 속에서 보은, 평등,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ㄷ). 최제우와 박종빈 모두 당시에 존재하던 각종 차별을 비판하며 인간 존중의 윤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최제우는 동학을 서학과 구별되는 우리의 학문이자 사상이라고 주장하며 서양 문물의 수용을 반대하였다.

5.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이성에 따른 삶이 곧 자연을 따르는 삶이며 그것이 곧 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한 스토아학파 사상이 제논이며, 을은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아퀴나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이 세계는 질서 있는 하나의 체계이며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인 자연법을 통해 세계의 질서, 즉 신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아퀴나스 또한 이성으로써 인식한 자연법을 통해 신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ㄴ).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나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아니라 신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법, 즉 신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신적인 것이 곧 자연적인 것이며 이성적인 것이므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의 계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ㄹ).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 모두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B에 들어갈 진술이다.

ㄴ.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최고의 행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C에 들어갈 진술이다.

6. 정약용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정약용의 주장이다. ② 정약용은 이법적 실체인 이(理)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의 관점과는 달리 인간의 성(性)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약용은 영지(靈知)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보았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영지의 기호가 아닌 형구(形軀)의 기호이다.

③ 정약용은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때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를 교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④ 정약용은 인의예지를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사단을 실천하였을 때 형성되는 후천적인 덕(德)으로 보았다.

⑤ 정약용은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그것은 자신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가 된다고 보았다.

7.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덕치(德治)를 강조한 공자, 을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바탕으로 정치할 것을 강조한 맹자, 병은 예치(禮治)를 강조한 순자이다.

③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는 외적 규범인 예(禮)를 통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자는 형벌에 의한 통치보다는 군주의 덕을 바탕으로 하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② 맹자는 군주보다는 사직[국가]이, 사직[국가]보다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민본 정치를 주장하였다.

④ 맹자는 군주가 인의(仁義)의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하지 않고 백성을 고통

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였다.

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8. 지눌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에 깨치는 돈오(頓悟)와 돈오 이후에도 나쁜 습기(習氣)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 즉 점수(漸修)의 방법으로써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이야기한 지눌의 주장이다. ② 지눌은 정혜쌍수를 돈오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 아니라 돈오 이후에 행해지는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눌은 마음의 본체가 정(定)이고 그 작용이 혜(慧)라고 파악하여 정과 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③ 지눌은 참다운 닻음[眞修]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돈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혜쌍수를 제시하였다.

⑤ 지눌은 돈오는 선지식(善知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 프로타고라스와 흄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한 프로타고라스, 을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라고 주장한 흄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모든 판단이 상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오로지 개인의 의견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ㄱ). 흄은 인간이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흄에 따르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며,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ㄹ. 프로타고라스는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0. 사회 계약에 대한 루소와 로크와 흄스의 입장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루소, 을은 로크, 병은 흄스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 로크는 자연 상태의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 흄스는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⑤ 루소는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나 사유 재산제 등의 사회 제도 발생으로 불평등해졌으며 이러한 억압적인 제도가 계기가 되어 사회 계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⑤는 루소가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은 루소가 로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② 로크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 위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의와 부정의, 합법과 불법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홉스는 정의와 부정의, 합법과 불법의 개념은 공통 권력 성립 이후에 존재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②는 로크가 루소와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③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③은 홉스가 로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④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리바이어던을 통해, 루소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일반 의지를 통해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④는 홉스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11. 행복한 삶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므로 그러한 삶 대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으며,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라고 보았다(L).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욕구이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R).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 아닌 욕구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욕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12.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발생 연원을 각각 이(理)와 기(氣)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 각각 다른 감정이 아니라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본래 순선(純善)한 사단과 선(善)할 수도 있고 악(惡)할 수도 있는 칠정은 발생 연원이 다른 감정이므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칠정은 기(氣)가 주도하여 발현된 감정이므로 칠정 중에서 선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이(理)가 주도하여 발현되어 본래 선한 사단보다는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파악한다. 반면 이이는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이 바로 사단이라고 파악한다(ㄴ). 이이는 주재성에 있어서는 이(理)만 기(氣)를 주재(主宰)할 수 있고, 운동성에 있어서는 이(理)는 운동성이 없고 기(氣)만 운동성이 있다고 파악한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이황과 이이는 모두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에서 발현한 정(情)이라는 주희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 ㄷ. 이황은 칠정은 기(氣)에 근원한 감정이므로 칠정 중에서 선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인의예지라는 성에서 근원하는 사단(四端)과는 차이가 있다고 파악한다.

13. 칸트의 도덕 법칙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의무로서의 도덕 법칙을 강조한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직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 행위자의 의지로 결정된다고 보고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ㄴ). 칸트는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은 동일한 원칙의 두 정식이므로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칸트는 인간은 자연법칙과 도덕 법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 ㄷ.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다른 행위라고 설명하며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려면 반드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상가 벤담, 을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상가 밀이다. ① 벤담은 자연이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 ③ 밀은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원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④ 밀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⑤ 벤담과 밀은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주장하였다.

15. 베이컨과 듀이 사상의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베이컨, 을은 듀이이다.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 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듀이는 지식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때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듀이는 어떤 가설이 항상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가설이 시대의 흐름이나 문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때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베이컨은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 기존의 삼단 논법이나 단순한 경험적 귀납법이 아니라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②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 즉 우상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듀이는 이론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때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베이컨과 듀이 모두 관찰과 실험을 통한 학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진보를 주장하였다.

16. 초기 불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할 때 인간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석가모니는 인간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여덟 가지 올바른 길, 즉 팔정도를 닦으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ㄷ). 석가모니는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고 삼독, 즉 탐[탐욕], 진[성냄], 치[어리석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석가모니는 무명(無明)이 소멸하면, 즉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인간은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ㄴ. 석가모니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인 오온(五蘊), 즉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은 무상(無常)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7. 자유에 대한 페팅과 별린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값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 공화주의 사상가 페тит, 을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이다. ④ 벌린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간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페тит은 현재의 간섭 유무와 관계없이 자의적 간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진정한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② 페тит은 합당한 법은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로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였다.
- ③ 벌린은 ‘~을 향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⑤ 페тит과 벌린 모두 합당한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값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병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영혼의 성찰을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으로서의 신을 사랑하고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인간이 행할 악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이 있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제력 없음으로 인해 인간은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궁극적으로 좋은 삶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9. 자본주의에 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값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의 원리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경쟁의 원리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③ 케인스는 실업과 불황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 투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불황 극복과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③은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케인스와 하이에크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은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② 케인스와 하이에크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 경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②는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④ 케인스와 하이에크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④는 하이에크가 케인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케인스와 하이에크 모두 시장에서 경쟁의 유익한 작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⑤는 하이에크가 케인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20. 민주주의에 대한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엘리트 민주주의 사상, (나)는 심의 민주주의 사상이다.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엘리트 정치가의 지배라고 규정한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심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자치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②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통치 권력을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호와 의사가 활발하게 표출되고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등 통치 권력을 위한 경쟁이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엘리트 민주주의는 대중의 의견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에 빠지기 쉽다고 본다. 또한 대중의 역할은 선거를 통해 통치 권력을 승인 또는 부인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심의 민주주의는 정책 심의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 결정에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자격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공공선을 개인들의 이미 결정된 선호, 즉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물로 보는 것을 비판하고, 시민 개개인의 사려 깊은 선호를 통해 공공선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엘리트 민주주의와 달리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엘리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심의를 중시한다.